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WSJ: 7월에 미국 소비자 지출 크게 늘어... 9월 금리는 동결
- Bloomberg: 아틀란타 은행 총재, “지나친 긴축 금리 조치 조심해야”

#### [미국 금융]

- Bloomberg: 연방 상원들, 크레딧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반대
- Bloomberg: 연준, 시중은행의 시정조치 요구 강화

#### [휘발유]

- CNN Business: 연방 노동절 주말 휘발유 가격 거의 최고치

#### [부동산]

- CNN Business: 미 잠정주택 판매 건수 두달째 상승

#### [운송]

- WSJ: 중국 경제 둔화 탓에 벌크선 운송 타격받아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임시직 고용↓, 건강한 노동 시장의 신호
- WSJ: 기업들 “AI 기술 사용 여부, 고객에게 알려야 하나?” 의견 분분
- CNBC: 항공사들, 효율적인 방법으로 비행기 탑승시키지 못하나?
- Bloomberg: Amazon, Shopify 판매자에게 Amazon 물류 개방
- Bloomberg: Dollar General, 판매 부진으로 전망치 낮추다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WSJ: Americans Increased Their Spending Significantly Last Month** 7월에 미국 소비자 지출 크게 늘어... 9월 금리는 동결 예상

- 7월에 소비자 지출이 빠르게 늘고 가격 압력이 계속 둔화되는 상황으로 나타나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최근의 이같은 지표들로 보아 연준은 9월에 금리를 그대로 놓아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심각한 경기 유발을 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미 경제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지출이 7월에 0.8% 올라 6월의 조정치 0.6%보다 높다고 연방상무부는 오늘 목요일 밝혔다.
- 특히 미국인들이 지출을 늘린 품목은 그로서리, 휴가 용품, 자동차 그리고 주택, 외식, 금융 서비스 및 보험과 같은 서비스에 지출을 더 많이했다. 인플레이션 조정치로 7월 소비자 지출은 0.6% 늘었다.

- 연준이 선호하는 가격 지수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7월에 작년 동월 비교해 3.3% 상승했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7월에 연율로 4.2% 상승했고, 6월에는 연율로 4.1% 늘었다. 향후 물가 예측으로는 핵심 인플레이가 더 정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 7월의 전체 물가와 핵심 물가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는데 6월 상승폭도 마찬가지였다.

WSJ 기사

## Bloomberg: Fed's Bostic Urges Caution to Avoid Inflicting Unnecessary Pain

### 아틀란타 은행 총재, “지나친 긴축 금리 조치 조심해야”

- 아틀란타 연방총재인 Raphael Bostic는 금리 정책을 지나치게 긴축시키지 말고, 미 노동시장에 불필요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는 남아프리카 연방은행의 격년 연구 컨퍼런스에서 발표될 연설문에서 “현재의 거시 경제 상황을 현재 금리 정책은 적절하게 제약적”이라며 “우리는 너무 많이 긴축 정책을 펼쳐 경제가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인내심을 갖으면서, 제약적인 정책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Credit Card Companies Urged by Senators to Cancel Plan to Raise Swipe Fees

### 연방 상원들, 크레딧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반대

- 연방 상원들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사가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계획을 취소할 것으로 촉구했다.
- 신용카드 업종의 상호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법의 주요 후원자인 민주당의 Dick Durbin 상원의원과 Roger Marshall 공화당 상원 의원은 어제 수요일 그 회사들인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는 수수료를 이미 끌어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 공동 성명서에서 그들은 이미 중소기업과 가격이 높은 식료품과 휘발유 가격을 감당하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 인상은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Fed Ramps Up Demands for Corrective Actions by Regional Banks

### 연준, 시중은행의 시정조치 요구 강화

- 미국 규제당국은 지역 은행들에게 유동성 계획을 강화해달라고 조용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올해 초 세차레에 걸친 은행 부실 사태 이후 감독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 소식통에 따르면 연준은 Citizens Financial Group, Fifth Third Bancorp, M&T Bank Corp 등 자산 규모가 1천억불에서 2천5백억달러에 달하는 대출 기관에 비공개 요구서한을 보냈다. 이 광범위한 서한에는 대출 기관의 자본과 유동성에서부터 기술과 규정 준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Bloomberg 기사

### [휘발유]

## CNN Business: Labor Day weekend gas prices are near all-time highs

### 연방 노동절 주말 휘발유 가격 거의 최고치

- 이번주 주말 노동절에 도로가 크게 붐빌 것으로 예상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연중 이맘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노동절 까지 해당 주 휘발유 가격은 2012년 사상 최고치인 갤런당 3달러 84센트를 기록했었다.
- 현재 전국 평균은 오늘 수요일 현재 AAA 에 따르면 갤런당 3달러 83센트다.
- 보통 여름이 끝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번 여름을 아니다. OPEC의 공급 억제와 폭염에 따른 정유 공장 가동 중단 탓이다.

CNN Business 기사

### [부동산]

## CNN Business: US pending home sales rose in July for the second month in a row

### 미 '잠정주택 판매' 건수 두달째 상승

- 계약 단계에 들어간 이른바 잠정주택 판매 건수(Pending home sales)가 7월에 0.9% 로 상승해 6월과 7월 연속 늘었다고 전국 부동산 협회는 밝혔다. 가격 상승과 모기지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나타났다고 나타났다.
- 당초 6월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는데 이같은 시장 예상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연간 잠정 주택 거래는 14% 떨어졌다.
- 일부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 인상과 물량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구매는 저하되고 있지만 일자리가 늘면서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의 풀이 커지거 있다

는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 [운송]

#### WSJ: China's Slowing Economy Spells Trouble for Dry-Bulk Shipping 중국 경제 둔화 탓에 벌크선 운송 타격받아

- 중국의 무역 활동 위축이 벌크 선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요금이 이번 주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
- 특히 중국 부동산 시장 둔화가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콘크리트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재정난으로 원자재를 운송하는 벌크선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 이번 주 가장 큰 벌크선인 capesize 선박의 일일 운임은 6월 초 이후 처음으로 1만 불 아래로 떨어졌다. 8월 초 이후 40%, 전 주 대비 27% 하락한 것. 벌크선 지수는 연초 이후 18% 이상 하락했다.

WSJ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Companies Are Using Fewer Temp Workers, but That Doesn't Portend a Downturn

임시직 고용↓, 건강한 노동 시장의 신호

- 임시직 고용이 감소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나쁜 징조는 아니다.
- 미국 임시직 근로자 수는 2022년 3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올해 1월 이후 매월 감소하고 있는 것.
- 과거에는 임시직 고용의 감소가 경기 약화를 의미 했지만, 현재의 임시직 고용 둔화는 건강한 노동 시장의 신호로 보인다.
- 업계 경영진과 이코노미스트들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인한 결과라고 말한다. 또한 임시직 근로자가 정규직 일자리를 찾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임시직 채용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GDP는 여전히 플러스”라며 “게다가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인 상황은 본 적이 없다”고 무역 회사 Staffing Industry Analysts 사장 Barry Asin이 말했다.

WSJ 기사

#### WSJ: Companies Will Use Generative AI. But Will They Tell You About It?

## 기업들 “AI 기술 사용 여부, 고객에게 알려야 하나?” 의견 분분

- 구글 딥마인드가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식별하는 새 도구를 출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AI 기술 사용 여부를 고객에게 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AI 기술 사용 여부를 고객에게 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업마다 의견이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출처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중요치 않다고 말한다.
-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에서 조작된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이미지와 달리, 광고에 사용된 가상의 캐릭터를 만든 게 사람인지 AI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 현재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로 훈련된 AI를 사용해 콘텐츠를 생성한 경우 출처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그러나 광고처럼 회사 자체 데이터를 사용하고 대중이 일반적으로 출처 인용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가 필수는 아니라고 간주된다.

WSJ 기사

## CNBC: Why airlines aren't boarding planes the most efficient way 항공사들, 효율적인 방법으로 비행기 탑승시키지 못하나?

-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기 위해선 ‘공항 도착 > 보안 검색대 통과 > 탑승구 찾기 > 항공기 탑승’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 1970년대에 평균 탑승 수속 시간은 10분에 불과했다. 지금은 45~55분 정도 걸린다.
- 항공편 지연으로 항공사와 승객은 매년 약 330억불의 손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탑승 절차 속도를 높이는 것은 항공사의 우선 순위가 아니며, 항공사는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한다.
- “고객들은 탑승 하는 우선순위로 보기 때문에 좌석에 가격 차이가 날지라도 탑승 시 편리한 곳으로 구매한다”며 “항공사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아메리칸 항공 전 고객 서비스 담당 부사장인 Kerry Philipovitch가 말했다.

CNBC 기사

## Bloomberg: Amazon, Shopify Strike Deal to Open Amazon Logistics to Sellers

### Amazon, Shopify 판매자에게 Amazon 물류 개방

- 아마존과 Shopify가 계약을 체결했다. Shopify의 판매자에게 아마존 물류 네트워크를 개방한 것.
- 곧 미국 내 Shopify 판매자가 아마존의 ‘프라임 구매’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아마존 관계자가 밝혔다.

- 이 프로그램은 9월 말까지 아마존 물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Shopify 판매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Dollar General Sinks as Fizzling Sales Spur Forecast Cut Dollar General, 판매 부진으로 전망치 낮추다**

- Dollar General이 2분기 연속 이익 전망치를 낮췄다. 판매 부진 때문이다.
- 이 회사는 “인건비 상승과 재고 증가 억제를 위해 향후 몇 달 동안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며 “연간 수익은 주당 기준으로 34% 떨어질 것”이라고 이번 주 목요일에 말했다.
- GlobalData의 매니징 디렉터인 Neil Saunders은 “Dollar General 사실상 시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 회사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니지만, 식료품 부문 평균 성장률보다 훨씬 낮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 **미국 인플레이 둔화 속 휘발유·중고차·병원비가 '숨은 변수'**

#### **전문가 "인플레이 불씨 순식간에 다시 타오를 수도"**

한동안 들쭉였던 미국의 물가가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휘발유 가격 등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떠올랐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30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

앞서 6월 소비자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3.0% 오르는 등 이와 비슷하게 집계됐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